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웨이난사범대학교	기숙사비	2875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산시성 웨이난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9.09.10~2020.01.03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명	△△△	학과	△△△학과
성별	여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01. 15 .

파견자 : △△△ (서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수업은 총 6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목들은 HSK, 쓰기, 말하기, 중국어기초, 조금중국어, 중국문화입니다. 쓰기와 중국문화수업을 제외한 4개의 수업들은 첫 수업에 중국어 수준을 보기 위한 시험을 치룹니다. 내가 있을 당시에는 유학생이 한국인 13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인원을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중간실력에 맞추어 수업을 하였습니다. 웨이난사범대에서는 각 과목당 3번 초과 무단결석을 할 시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중간고사가 없으며 총 성적에는 기말고사가 60%, 출석이 40% 반영됩니다. 또한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은 안계시지만 중국어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HSK수업은 학생들이 어느 급수를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 교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교수님이 프린트를 하셔서 주시는데 만약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교수님께서 좀 더 쉬운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HSK수업의 속제는 가끔씩 문법 쪽지시험이나 단어시험을 치룹니다. 교수님께서 전 주에 시험을 치룬다고 알려주시며 이러한 쪽지시험 또한 성적에 포함되지만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쓰기 수업은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책을 나눠주는데 그 공책으로 쓰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따로 교재와 과제는 없습니다. 말하기, 중국어기초, 조금중국어 수업은 한 과가 끝날 때마다 단어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성적에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국문화수업은 따로 교재와 쪽지시험이 없으며 문화를 설명 듣고 체험하는 수업입니다. 모든 수업의 교재는 원한다면 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부담이 되는 경우 책을 복사하여 제본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의 경우 교수님들께서 어렵게 출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기 중 한번 학교에서 시안으로 병마용과 화장지를 견학가기 때문에 따로 여행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웨이난사범대학교는 산시성 웨이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두루두루 챙기는 것이 편리하고 웨이난은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웨이난의 교통은 다른 대도시보다는 좋지 못한 편입니다. 하지만 교통요금이 저렴하고 봄과 가을의 경우 1위안이며 여름과 겨울에는 2위안입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6위안이며 다른 지역의 기본택시요금보다 저렴합니다. 웨이난은 시안과 가깝기 때문에 시안으로 많이 여행이나 놀러 갑니다. 시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와 기차로 갈 수 있는데 기차의 경우 고속기차와 일반기차로 나뉩니다. 고속기차를 타기 위해선 북역으로 가야하는데 학교 정문으로 나가면 여러 택시기사가 호객행위를 하고 보통 1인당 10위안씩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디디추싱 어플을 통해 가는게 더 저렴합니다. 역을 가는 버스도 존재하지만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택시를 추천합니다. 웨이난의 경우 대표적인 3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정문 앞 바로 영화관이 있으며 매우 저렴합니다. 학교 동문을 나가면 여러 식당들이 있으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다른 입구로 나가면 큰 마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택배 찾는 곳은 학생식당 뒤편에 있으며 미용실과 편의점 등 여러 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보통 기숙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내에는 중국공상은행과 건설은행 ATM기기가 있으며 정문입구 구석에는 중국은행 ATM기기가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웨이난사범대학교에 오기 전 중국공상은행 카드를 만드는 것이 편리합니다. 학교를 출입할 때 경비원 분들이 학생인지 확인하시기 때문에 각자 방카드나 학생카드를 소지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증을 찍어 보여줘도 통과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하루 25위안/2875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저녁11시부터 6시40분까지는 기숙사 밖으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한달 전기사용이 60을 넘을 경우 30을 추가 구매해야합니다.		
주요사항	기숙사비는 학기말에 지불 학생카드 보증금 50위안 와이파이가 없거나 잘 안될 수 있으므로 공유기 필수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는 다른 학교기숙사에 비해 매우 넓은 편입니다. 수압도 강합니다. 깨끗합니다.

온수사용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매주 한요일마다 청소아주머니가 오셔서 이불을 갈아주시며 쓰레기통을 비워주십니다.

전기용품사용에 대한 제제는 따로 없습니다.

전기잔량이 0이 되면 전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운터에 가서 전기를 충전해 달라고 하면 충전을 직접 해주시거나 전기카드를 주십니다.

한달 무료 사용은 60이며 만약 더 쓴다면 16위안을 내고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한국인 기숙사가 1층이며 강의실이 2층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따로 조리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세탁실은 옆 기숙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물이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만 매우 더러우므로 꼭 샤워필터를 챙겨야 합니다.

또한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공유기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건물 내 1층에 바로 편의점이 있고 기숙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바로 앞 간이서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탁실은 같은 건물에 없으며 옆 기숙사 1층에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기숙사로 남자는 남자기숙사 세탁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탁실은 기숙사 1층에 위치합니다. 세탁카드의 경우 기숙사 카운터에 말하면 현금 50위안에 살 수 있습니다. 총 12번 쓸 수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도서관이며 도서관 1층에 공상은행, 건설은행 ATM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와이마이를 시켜먹을 경우 남문으로 주소를 설정해 놓으면 편합니다. 2식당 바로 옆 여러 학생들이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북문보다는 남문이 기숙사에서 가깝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학교 운동장의 경우 저녁9시 30분까지 이용 할 수 있으며 트랙과 배트민턴 네트와 탁구대, 축구장이 있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모습이며 보통 교수님들께서 칠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기숙사 바로 위층에 위치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1식당의 모습이며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서양음식점과 한국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들은 학생 카드로 돈을 충전하지 않고 위챗이나 썬푸바오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1식당의 2층 마라상귀가 아주 맛있습니다. 2식당은 기숙사와 가까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2식당 2층에 마라반이 매우 맛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후기

2019년 2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중국에서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총 6가지 과목을 배우면서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졌으며,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중국어가 느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저 전공이어서 억지로 중국어를 배우는 느낌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 웨이난사범대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웨이난사범대학 측에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학교에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해주고 중국 유명지인 병마용과 환청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어려움이 있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었을 때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매우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친절함에 고마워져서 저도 최대한 후기를 많이 작성하여 웨이난사범대학교에 갈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웨이난사범대학교에서 지내면서 총 5번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이 다녔는데 한국에 오는 마지막까지 더 많은 곳을 가보지 못하여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간 지역으로는 내몽고, 베이징, 리장, 따리, 쿤밍, 구이린, 시안을 가보았습니다. 웨이난이라는 지역이 시안과 가까운 만큼 시안으로 여행을 많이 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같은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직접 찾아가고 경험해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시안 여행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시안성벽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돈 것입니다. 또 다른 여행지로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 중추절에 내몽고로 여행을 갔습니다. 몽고빠오에서 잠을 자고 말과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베이징은 시간이 없어 둘러보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내년엔 다시 갈 생각에 아쉬움을 떨쳐내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중국여행을 통해 다양한 지역들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느껴보면서 여행을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오티를 할 때 비행기 왕복표보다는 편도표를 추천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왕복표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비교해보니 큰 차이는 없었으며 중간에 왕복표를 취소하기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 어쩔수 없이 입국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기간이 끝나고 비자 남은시간동안 좀 더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편도표를 끊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지한 중국 대학교 중강일자와 직접 들은 중강일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직접 중국에 와서 제대로 된 중강일자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꼭 중국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